

중국경제성장을 저하에 따른 한국계은행의 대 중국 진출동기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ntering Motives of Korean Banks into Chinese Financial Market in Accordance with Shrinking of China's Economic Growth Rate

Jung Seok Choi*, Nae Joon Lee**

Sun Moon Univ., Kalsan-ri, Tangjeong-myoon, Asan, Chungnam,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use total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 China(TR), amount of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into China(FDI) and Gross domestic product of China(GDP) as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banks' entering motives into Chinese financial market, an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branches of Korean banks in China showed a correlation of total trade amount in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amount of direct investment. Korean banks operating in China means that motivation is expressed that to follow the clients which enter into Chinese industry from their home country, agrees to follow the clients from their home country. Second, Chinese growth of GDP shows no effect on the number of Korean bank's branches in China. This motivates Korean banks operating in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and explain that this is not intended to share with the development achievements of China.

Key words: Korean bank, entering motive, Chinese financial market, international bank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계은행의 대중국 진출동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중무역총액(TR), 한국 대 중국직접투자액(FDI), 중국 국내총생산액(GDP)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의 한국계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은 한·중 무역총액 및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금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계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는 모국의 고객을 추종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가설1의 검

* The 1st author. Tel. +82-41-530-8430. E-mail. ayuwa@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1-530-8576. E-mail. njlee@sunmoon.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 25, 2015 / Revised: Jul. 8, 2015 / Accepted: Jul. 15, 2015

증을 통해 선행연구의 이론부분에서 언급한 고객추종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국 GDP는 중국의 한국계은행 지사기구 수량에 대하여 영향이 없었다. 이는 한국계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의 발전성과(시장기회)를 함께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가설2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한국계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동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한국계은행, 은행의 국제화, 진출동기, 중국금융시장

1. 서론

중국은 세계 G2국가로서,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8%이상의 GDP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비능력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수경제의 발전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은 세계 각국은행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이후, 중국정부는 점진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하여 금융시장의 확대개방을 실시하여 수많은 외자은행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¹⁾. 2013년 말 기준, 중국 금융시장은 중국 국유상업은행²⁾, 주식제 상업은행³⁾, 도시상업은행⁴⁾, 농촌상업은행⁵⁾ 등 다양한 유형의 법인은행기구까지 총 3949여개가 설립되었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들은 총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70여개 외자은행들이 42개의 현지법인은행과 190여개의 외국은행 분행(비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자산총액은 2조 5628억 위안에 달했으며 2012년 대비 7.66%를 증가하였고 중국은행업 금융기구 자산총액의

-
- 1)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 추진과제로서 “금융업의 외연확대”를 제시하였고, 특히 “글로벌 기업, 축적된 국부, 금융외교 등을 활용한 금융한류 창출”을 통해 금융업을 “신중국 의 성장엔진을 동반 향유할 수 있는 매개 산업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로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개선, 해외금융시장 개척기반 마련, 금융국제화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과제로서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현지 금융회사 M&A활성화,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진출 등을 제시하였음(금융위원회, 2013).
 - 2) 국유상업은행에는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개발은행(정책은행 당시 국가개발 은행)등 5개 은행이 존재한다. 2008년 12월에는 그동안 정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가개발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유상업은행의 규모(재정부와 중앙회금공사가 각각 지분의 51.3%와 48.7%를 보유하면서 국유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가 더욱 확대되었다(구기보, 2013: 149).
 - 3) 주식제 상업은행 중 최대규모의 은행은 교통은행이며, 그 외에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초상은행 등이 있다(구기보, 2013: 150).
 - 4) 도시상업은행은 과거 도시신용합작사가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은행으로서, 베이징은행, 상하이은행, 길림은행 등 일반적으로 해당도시의 이름이 붙어있다(구기보, 2013: 149).
 - 5) 농촌상업은행은 기존 농촌신용합작사가 농촌신용합작사, 농촌합작은행과 함께 분화되어 나온 은행으로서, 도시신용합작사의 도시상업은행으로의 전환에 이어 최근 농촌신용합작사의 농촌상업은행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구기보, 2013: 149).

1.73%를 차지하고 있고 외자금융기구 종사인원은 45,424명이며 2012년 대비 1.94%증가하였다.

한국 역시 중국의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1992년 8월 한중 외교관계 수립 후 한국 외환은행이 북경에 사무소를 최초로 설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지 법인 수, 지점 수, 진출지역 수 등 한국계은행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한국계 은행은 34개국에 152개 해외영업점을 운영 중인데, 그 중 중국이 총 18개 영업점(현지법인 6개, 지점 8개, 사무소 4개)을 운영하며 한국계 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해외진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⁶⁾.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는 한국계 주요 6개 시중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총 76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산업은행(4개 지점), 부산은행(1개 지점), 대구은행(1개 지점), 수출입은행(2개 사무소), 농협(1개 사무소) 등이 진출하고 있다⁷⁾.

한국계은행이 중국을 제외한 기타 진출지역과 비교할 때, 중국은 최근 한국계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며,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⁸⁾. 특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와 고성장장이 유지되고 있고, 금융 산업의 발전과 개방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 및 금융한류 확대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외자은행의 중국진출 관련 법률과 제도 역시 WTO 가입 후 5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포되어 중국 금융 산업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시계열 순으로 주요 정책과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1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가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외자은행에 인민폐업무 개방시키고 중국은행업이 전면적으로 대외개방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금융시장의 확대개방은 외자은행이 중국국내에서 설립계약에서 벗어나게 했고 외자은행이 중국에서의 발전을 한 단계 더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외자은행들은 중국으로의 진출이 안정적인 추세 속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둘째, 2013년 2월 19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 리스크 관리방법"을 통과시키고,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 관리시스템 완비 및 리스크 관리의 전문화,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구조화, 상업은행 및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업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관련 우려 해소,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의 상호결합, 미시적 건전성과 거시적 건전성의 상호결합, 기존 감독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프레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⁹⁾.

6) 그 외 베트남(17개), 홍콩(12개), 일본(10개), 인도(9개)등, 금융감독원. 2014.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현황 및 감독방향. 정례 브리핑 자료.

7) 지만수. 2014. 중국은행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진출환경. 한국금융연구원. 15-17.

8) 2013년 말 기준, 한국계 은행의 중국점포 자산규모는 201억 달러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컸으며, 2011-2013년 사이에 21.7%증가하였음.

9) China Inside. 2014. 중국 상업은행 유동성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신 규정 도입. 주간 금융브리프.

셋째, 2014년 12월 20일,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외자은행 관리 신 조례”를 발표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2006년 말 중국정부가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발표해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를 전면 개방하였지만, 높은 장벽으로 중국은행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가 외자은행과 중국 내 은행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외자은행 운영에 더욱 유연하고 자주적인 제도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기존 최소 1억 위안의 운영자금 기준을 폐지하였고,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경영관련 기존 중국 내 영업기간이 3년 이상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시켰고, 신청 전 2년 연속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하였으며, 외국계은행이 중국에 분행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대표처를 우선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 정책반포로 인해 기존의 높은 장벽을 완화시켜 외자은행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계은행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⁰⁾.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1장에서 서론, 2장에서는 은행의 해외진출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 한·중 무역총액(TR), 한국 대 중국직접투자액 (FDI)과 중국 국내생산총액(GDP)을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TR과 FDI로 고객추중(무역추중설과 투자추중설)을 대표하고, GDP로 중국의 발전성과(시장기회설)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해당하는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하는 등의 연구설계를 진행하고, 4장에서의 실증분석은 Eviews 6.0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은행의 해외진출은 은행이 국제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 은행의 해외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미국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미국 기업들이 더욱 유리한 투자 기회를 찾아 유럽지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국외로 진출한 미국 기업의 현지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계 은행이 국외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 부흥에 성공한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국제 수지의 흑자 전환과 자본 자유화 등으로 말미암아 은행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막대한 오일 잉여자금으로 아랍계 금융기관과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 확보와 해외진출 자국 기업 및 해외 교포의 지원을 위

10) 人民日報. 2014.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外資銀行管理條例〉的決定

한 개발도상국의 금융 국제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다¹¹⁾.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이론은 주로 선진국 은행의 국제화과정을 설명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발전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Grubel, Giddy, Davis 등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Grubel의 국제화 이론

Grubel(1977)은 은행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은행에 대한 비교우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점포에서 수행하는 업무 형태를 소매업무, 서비스업무, 도매업무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각각 다른 해외진출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은행의 국제화는 다국적 소매은행(multinational retail banking), 다국적 서비스은행(multinational service banking), 다국적 도매은행(multinational wholesale banking)등 세 단계의 발전단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다국적 소매은행은 국내시장을 상대로 개발된 경영기업이나 마케팅 노하우 등을 낮은 한계비용으로 해외에서 이용함으로써 현지은행에 비해 경쟁상의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에서의 제조업의 국제화과정과 동일하여, 주로 제품차별화, 광고, 지점선정, 사무자동화 등의 기법을 현지시장에 적용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국적 서비스은행으로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기업의 해외에서의 은행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행도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국내고객을 따라 해외로 진출한 은행들은 해외자회사의 모기업과 오랜 유대관계로 그 기업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지 은행들과의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또한 해외로의 진출은 기존 고객이던 자국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지키고자하는 방어적 조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세 번째의 다국적 도매은행은 국제간 자본이동에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유로시장에서의 거액의 자금차익거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형태이다. 즉 주요국가의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한 해외지점을 통해 자금조달, 투자 및 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려는 것이다.

2) Giddy의 국제화이론

Giddy(1986)는 입지, 실적, 시장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본국중심 국제은행(Arm's length international banking),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현지국(수용국) 중심은행(Host country international banking)등으로 은행국제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본국중심 국제은행은 국제금융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외국인에 대한 수신 및 여신업무와 코레스 은행의 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통한 자금결제를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역외은행은 역외

11) Xing Gang. 2012.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단기성 유로커런시 자금조달 및 운용과 신디케이트론, 은행 간 거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셋째, 현지국 중심은행은 해외시장으로 직접적인 진출을 통해 해외현지 거주자를 상대로 수행하는 금융활동으로서 현지 금융시장에서 독점이윤을 실현할 수 있고, 현지시장 진입 후에 타 은행의 도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한 국제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Davis의 국제화 이론

Davis(1979)는 은행의 국제화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1단계 국제부문 설치과정, 2단계 국제화과정, 3단계 다국적화 과정, 4단계 범세계적인 은행, 전문특화은행, 국내지향은행 중 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은행의 국제화 발전단계

단계	단계별 특징	주요업무	전략기조
I	국제부문 설치	- 국내 거래처 대상 수동적 서비스 - 해외지점망 없이 본점에서 금융업무처리, 외국은행과의 코레스 계약 체결, 단기 무역금융 위주	-국내고객지향 -서비스 확충 전략
II	국제화	- 국내시장에서의 적극적 고객창조 - 해외점포진출 개시, 국제부문 조직 확대 - 국제금융시장 참여	-타행과 경쟁 전략
III	다국적화	- 주요 국제금융시장에 거점 확보 - 해외시장의 고객 개척 - 수수료수입 확충, 총자산 이익률 중시 - 국제부문의 기능별, 대상고객별 조직 분할 개시	- 수익성 제고전략
IV	범세계적, 전문특화, 국내지향 은행 중 하나의 유형으로 발전	- 국제금융시장, 고객의 선택적 접근 - 통합적 금융서비스 제공 - 특화할 국제 업무분야에 국한 - 국내거래선 우선으로 국제 업무의 노하우를 국내시장에 활용, 해외지점망 축소	- 독자적 통일전략 수립

※ 자료 : Davis(1984), p.34.

각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국제부문 설치단계(국내금융 단계)는 은행국제화의 초기단계로 국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을 주요업무로 하며, 국제금융 업무는 고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시기이다.

제2단계인 국제화단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지에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단계로서, 은행의 업무 중 국제금융업무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며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설치를 통해 해외활동의 현지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고객과의 차입 및 대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객의 범위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현

지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3단계인 다국적화 단계는 은행이 주요 해외금융시장에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로서, 머천트 बैं킹, 리스, 팩토링 등 금융관련 업무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금융업에 주력하고 대고객 활동도 은행 간 거래에 참여하여 자금거래 및 서비스제공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여, 세계적인 점포망을 이용한 금융활동으로 수익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제4단계에서는 은행의 국제화전략에 입각하여 범세계적 은행, 전문은행, 국내지향은행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되는 단계이다. 범세계적 은행은 특정지역이나 한정된 업무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특화은행은 국제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을 우선으로 하여 국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지향은행은 해외지점망을 축소하고 국제 업무의 노하우를 국내시장에 활용하는 등 국내 거래영업을 우선으로 하는 은행이다.

Grubel(1977)의 국제화 이론은 은행의 해외 진출 요인 및 현지시장에서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요인을 설명해 주고, 은행의 국제금융활동 특성에 따라 도·소매 금융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지만, 비교우위요소에 한정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접목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 이론을 Davis(1979)의 국제화 이론의 각 단계와 접목시켜 보면 다국적 소매은행은 범세계소매금융과, 다국적 서비스은행은 국제금융과, 그리고 다국적 도매은행은 범세계도매금융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iddy(1986)의 국제화 이론은 각 은행이 본국에서의 활동과 역외금융시장 및 진출 수에 차이가 있는 하지만 해외진출을 통한 활동을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세 가지 활동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국제금융활동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Davis(1979)가 제시한 은행의 국제화 발전단계는 미국계 상업은행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자금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보다는 은행이 먼저 해외에 진출하였다는 점과 진출의 성격상 국제소매금융으로의 진출이 Davis(1984)가 제시한 국제금융단계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점 등에서 한국의 은행의 국제화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2.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선행연구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해외진출과 한국계 은행의 해외진출 등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해외진출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진출방법 및 현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봉교(2014)는 중국의 각 은행별로 해외진출의 특징을 분석하여 해외진출의 동기나, 진출지역, 진출방법을 중심으로 국제화 동기를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은행 내부의 경쟁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해외시장의 신규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기 보다는 해외진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기존고객인 중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우선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해외진출 지역도 홍콩 등 기존고객인 중국기업의 무역과 해외투자가 활발할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 등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지역으로의 해외진출도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방식은 경영권을 확보하는 M&A 방식이 선호되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본사의 경영진, 나아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국제화의 동기에 반영되었음을 제기하였다.

제정조(2013)는 중국은 은행 영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 강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부양과 유동성 팽창으로 우려되는 부실채권 발생의 선제적인 방어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 진출 외자은행들은 예대비율 준수, 신상품 허가제, 보수적 대출심사, 영업망, 고객 선호, 문화 인식, 우수 금융인력 확보 등에서 경쟁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화 전략을 통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업망 확충, 농촌은행 진출, 영업전략 다양화, 민관협력체제 강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Unite & Sullivan(2003)은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를 통해 외국은행의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이 필리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회계자료와 일반 거시적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대마진을 및 수익은 전 기간에 걸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은행의 진출로 인하여 필리핀 은행들이 외국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 운영비의 절감을 실현하였지만 위험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운영비 감소의 결과는 Claessens, *et al.*(2001)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위험성의 증가는 국내은행이 외국은행의 국내진입에 대응하여 국내은행들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까지 경쟁적으로 유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白欽先·譚慶(2008)은 금융기능의 확장 및 향상은 금융기능의 발전이고, 금융기능의 발전은 곧 금융발전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성 금융기능의 내부체제와 외부효율에 대해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능을 기초기능, 핵심기능, 확장기능 및 파생기능 등으로 나눈 후, 기초적인 금융서비스 기능과 자금중개기능에서 효과적인 자원배분기능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금융기능의 진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의 금융발전에 있어서 양질의 변화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금융자산 증가 등과 같은 양적 축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발전단계 및 효율성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변화가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한국계 은행의 해외진출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한국계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더욱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금융 마케팅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분석에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본성(2008)은 한국계 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 신흥 성장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은행부문의 국제화는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반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규모나 수익 측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그 동안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적 측면이나 국책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강하지만, 한국경제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룩한 자본축적이나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 힘입은 경영성과의 완전한 회복을 감안할 때 국제화는 국내 은행산업의 핵심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김희식(2008)은 선진적인 금융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전제조건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연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 투자자금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제도의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은행산업의 비대칭적 성장을 시정하고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규모 확대나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제고 하고 은행은 국내의 자본시장과 관련한 복합금융업무 등을 확대한다. 셋째,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시장모니터링 및 금융 감독기관 간 국제협조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세계화에 따라 증대되는 외환부문의 충격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국제시장과 외환시장을 연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서병호(2008)는 해외진출 차별화 전략으로 진출초기에는 지역적 차별화가 필요하며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 하는 복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계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한국계 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감독 현황과 문제점, 해외 글로벌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 해외 금융선진국의 해외진출 정책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계 은행과 정부 모두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개선해야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후조양(2005)은 WTO 가입에 따른 중국 은행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계 은행의 중국금융시장 진출현황 분석하여 중국진출에 따른 진입전략을 부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상당한 리스크와 매몰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성 등의 문제점 및 중국 금융시장의 현 상황과약을 통하여 진입장벽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의 선정 및 포지셔닝 전략을 실행하고 서비스 종류, 마케팅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등에 관한 진입전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rramilli & Rao(1990)는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진출 형태를 선정할 때 기업의 형태와 진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진출의 상황에 따라 고객추종형(client following) 진출과 시장개척형(market seeking)진출 형태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고객추종형이 시장개척형일 때보다 현지시장에서의 고객에 대한 운영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더 높은 개입수준을 가진 진출형태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 관한 한국 학술계의 전문 연구문헌이 아직 비교적 적고, 기존의 연구문헌 역시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논문의 연구내용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 발전의 현황, 문제점 등에 국한되고 한국계 은행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발전한 동기 및 발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증 분석방법을 통해 한국계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에 대하여 투자추종 및 무역추종 측면에서 고객추종이론과 현지국의 발전성과공유 측면에서의 시장기회이론 등 두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국에 있는 한국계은행의 지사기구 수량과 각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변수와 데이터의 선택

1) 변수의 선택

(1) 종속 변수

초기 외국계은행이 중국시장 진출동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보통 자산규모와 지사기구 수량을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과거 한국계 은행의 자산규모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에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무소는 경영성과 측면에서 지점에 비해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수익성측면에서의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 지사기구 수량을 계산할 때 사무소의 수량*1, 지점의 수량*2¹²⁾로 표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지사기구 수량은 사무소의 수량*1과 지점의 수량*2의 합을 의미한다.

(2) 설명 변수

앞에서 언급한 Grubel의 국제화 이론, Giddy의 국제화이론, Davis의 국제화 이론을 검증하고 기타 외국계은행의 중국 진출동기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본문에서는 주로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출하여 발전하는 것을 고객을 추종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중국의 발전성과(시장기회)를 공유하려는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서 한·중 무역총액(TR), 한국 대 중국직접투자액(FDI)과 중국 국내생산총액(GDP)을 선택하였다. 그 중 TR과 FDI로 고객추종(무역추종설과 투자추종설)을 대표하고, GDP로 중국의 발전성과공유(시장기회설)에 해당하는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하였다.

Grubel(1977)의 다국적 서비스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기업의 해외에서의 은행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행도 해외진출활동을 펼친다는 주장과 Davis(1979)의 고객의 수요에 대한 업무개발에 주력 및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설치를 통해 해외 활동의 거점을 확대하며, 해외부

12) 지점은 자국 모회사의 일부로 주로 도매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해외자회사 법인은 진출대상국의 은행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소매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해외에 직접 대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문에서 언급한 지점의 개념은 각 은행의 해당지역의 분행과 지행의 합친 것을 의미한다(서봉교, 2014).

터의 차입 및 해외로의 대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고객의 범위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해외현지기업까지 확대되고, 해외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이 점차 증가된다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1: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출하여 발전한 것은 자국의 고객을 추종하고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이다. 즉, 한·중 무역총액과 한국 대 중국직접투자금액의 증가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Giddy(1983)는 은행의 국제화 현상을 입지, 성과, 시장형태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접목하여 국제금융현상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고, Agarwal & Ramsawami(1992)는 Dunning(1980)이 제시한 소유특유우위(기업규모, 다국적경험, 제품차별화 능력), 내부화우위(계약 위협), 입지특유우위(시장잠재력, 투자위험)가 진출형태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출하여 발전한 것은 중국의 발전성과(시장기회)를 공유함이 목적이다. 즉, 중국GDP의 성장은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자료 및 기초통계량

한국계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외환은행이 1992년에 중국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2년-2013년 동안의 연간통계(annual data)를 활용하였으며, 동인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대 중국 직접투자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2> 참조).

2. 추정모델 수립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간통계의 대외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모두 자연로그 처리를 진행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계 은행의 발전동기를 연구하기 위해 아래의 $LOG(NUM)$ 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LOG(TR+FDI)$ 와 $LOG(GDP)$ 를 설명변수로 하여 기본적인 추정모델을 수립하였다.

$$LOG(NUM)_t = c + \beta_1 LOG(TR+FDI)_t + \beta_2 LOG(GDP)_t + \epsilon_t$$

그 중 c , β_1 , β_2 은 설명변수의 추정계수이고 NUM 는 지사기구 수량이며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의 발전상황을 의미한다. $LOG(NUM)$ 는 NUM 에 대한 자연로그로 처리하였으며, $(TR+FDI)$ 는

한·중 무역총액과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금액의 총합이고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출하여 발전한 것은 모국의 고객을 추종하기 위한 것을 표시한다. 그 과정에서 양자를 더한 것은 양자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LOG(TR+FDI)$ 는 $(TR+FDI)$ 에 대한 자연로그로 처리하였으며, GDP 는 중국 국내생산총액으로 중국의 발전성과(시장기회)를, ϵ_t 는 외부적 영향 요소항목을 의미한다.

<표 2> 해당 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 \$억)

연도	지사기구 수량	GDP	무역총액 (TR)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액 (FDI)	TR+FDI
1992	1	4882.22	63.78	1.41	65.19
1993	3	6132.23	90.80	2.54	93.34
1994	6	5592.24	116.66	6.41	123.07
1995	11	7279.81	165.45	8.42	173.87
1996	13	8560.85	199.16	9.42	208.58
1997	15	9526.53	236.89	7.81	244.70
1998	15	10194.62	184.28	6.81	191.09
1999	15	10832.79	225.51	3.49	229.00
2000	17	11984.75	312.44	7.57	320.01
2001	17	13248.18	314.93	6.47	321.40
2002	17	14538.20	411.53	10.79	422.32
2003	26	16409.66	570.19	17.92	588.11
2004	31	19316.44	793.48	23.68	817.16
2005	43	22576.19	1005.63	28.18	1033.81
2006	48	27134.95	1180.16	34.39	1214.55
2007	57	34956.64	1450.13	52.68	1502.81
2008	82	45218.27	1861.13	37.64	1898.77
2009	92	49905.26	1562.30	21.69	1583.99
2010	98	59312.03	2071.79	36.19	2107.98
2011	100	73249.52	2206.31	35.72	2242.03
2012	154	82292.29	2151.10	36.16	2187.26
2013	160	91849.97	2289.20	51.00	2340.20

자료출처: 중국 인민은행.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웹 사이트. 각 년도 중국금융연감.

IV. 실증분석 및 결과

상기 연간통계자료를 기준으로 Eviews 6.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상술한 방정식에 대해 보통 최소 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다중 회귀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의 결정계수 R^2 은 0.93이고 조정 후(Adjusted)의 결정계수 R^2 는 0.9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속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F통계량은 127.2991 ($p=0.0000<0.05$)로 나타나 추정모델의 전반적인 선형 구조관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다중 회귀분석 결과표

Dependent Variable : LOG(NUM)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TR+FDI)	0.8973	0.2828	3.1724	0.0050
LOG(GDP)	0.2194	0.3552	0.6178	0.5440
C	-4.5587	1.8255	-2.4972	0.0219
R-squared	0.9305	Mean dependent var		3.2306
Adjusted R-squared	0.9232	S.D. dependent var		1.2783
S.E. of regression	0.3541	Akaike info criterion		0.8879
Sum squared resid	2.3830	Schwarz criterion		1.0367
Log likelihood	-6.7673	Hannan-Quinn criter.		0.9229
F-statistic	127.2991	Durbin-Watson stat		0.5704
Prob(F-statistic)	0.0000			

각 변수의 회귀분석 검증결과를 보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설명 변수는 $LOG(TR+FDI)$ 이고, $LOG(GDP)$ 는 유의수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설명변수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 상관계수 분석결과

	LOG(NUM)	LOG(GDP)	LOG(TR+FDI)
LOG(NUM)	1.0000	0.9453	0.9639
LOG(GDP)	0.9453	1.0000	0.9716
LOG(TR+FDI)	0.9639	0.9716	1.0000

<표 4>는 각 변수 간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LOG(GDP)$ 와 $LOG(TR+FDI)$ 의 상관계수는 0.97에 달하여 심한 다중공선성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다.

<표 5> LOG(GDP)제거후 회귀분석 결과표

Dependent Variable : LOG(NUM)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TR+FDI)	1.0671	0.0658	16.1964	0.0000
C	-3.4621	0.4198	-8.2459	0.0000
R-squared	0.9291	Mean dependent var		3.2306
Adjusted R-squared	0.9256	S.D. dependent var		1.2783
S.E. of regression	0.3486	Akaike info criterion		0.8169
Sum squared resid	2.4309	Schwarz criterion		0.9161
Log likelihood	-6.9860	Hannan-Quinn criter.		0.8402
F-statistic	262.3264	Durbin-Watson stat		0.5768
Prob(F-statistic)	0.0000			

이상 분석을 통해 $LOG(GDP)$ 의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과 동시에 모델이 다중공선성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LOG(GDP)$ 를 제거한 후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는 단계적 회귀분석결과와 일치하며, 구체적인 회귀추정결과는 <표 5>와 같다.

비록 회귀방정식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고 ($F=262.3264$, $p=0.000<0.05$), 조정(Adjusted) $R^2=0.9256$ 로 나타났지만 $DW=0.5768 \in [0, d_L] = [0, 1.24]$ 이어서 잔차 계열은 양의 자기상관 관계가 존재하여 회귀 결과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LM통계량을 이용해 검증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LM검증결과(p=1)

F-statistic	6.4316	Prob. F(1,19)	0.0201
Obs*R-squared	5.5637	Prob. Chi-Square(1)	0.0183

<표 7> LM검증결과(p=2)

F-statistic	3.1082	Prob. F(2,18)	0.0693
Obs*R-squared	5.6474	Prob. Chi-Square(2)	0.0594

LM통계량결과에 따르면 회귀방정식의 잔차는 시계열상관성이 존재하므로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는 유효하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차의 시계열상관성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원래 모델의 조정을 통해 AR(1) 자기회귀모델을 이용하여 방정식 중 잔차 계열의 자기상관성을 수정하여 도출된 회귀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조정 후의 회귀분석결과

Dependent Variable : LOG(NUM)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TR+FDI)	0.8553	0.0898	9.5224	0.0000
C	-1.9541	0.6183	-3.1602	0.0054
AR(1)	0.5361	0.1073	4.9932	0.0001
R-squared	0.9762	Mean dependent var		3.3845
Adjusted R-squared	0.9735	S.D. dependent var		1.0812
S.E. of regression	0.1757	Akaike info criterion		-0.5083
Sum squared resid	0.5557	Schwarz criterion		-0.3591
Log likelihood	8.3377	Hannan-Quinn criter.		-0.4759
F-statistic	369.6367	Durbin-Watson stat		1.4759
Prob(F-statistic)	0.0000	Inverted AR Roots		0.54

도출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DW=1.4759 \in [d_u, 4 - d_u] = [1.43, 2.57]$ 으로, 잔차 계열은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에 존재하는 계열 상관성을 제거한 후, 아직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White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9> White검증결과

F-statistic	0.2771	Prob. F(5,15)	0.9185
Obs*R-squared	1.7762	Prob. Chi-Square(5)	0.8792
Scaled explained SS	1.6930	Prob. Chi-Square(5)	0.8898

White검증결과를 보면, Obs*R-squared의 수치는 1.7762이고 Probability수치는 0.8792로서, 이 모델은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표 8>의 회귀결과로부터 얻은 검증결과는 $F=369.6367$, $p=0.000 < 0.05$ 라는 것과 조정 후 Adjusted $R^2=0.9735$ 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W와 White의 검증결과는 잔차 계열이 자기상관성이 없다는 것과 모델이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회귀결과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LOG(NUM)_t &= -1.95411 + 0.855316LOG(TR + FDI)_t + \hat{\epsilon}_t \\ \hat{\epsilon}_t &= 0.536117\hat{\epsilon}_{t-1} + \hat{\mu}_t \end{aligned}$$

유의 수준($p < 0.05$)에서 $LOG(TR + FDI)$ 의 회귀계수는 t검증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회귀계수가 0.8553이면 $LOG(TR + FDI)$ 은 $LOG(NUM)$ 에 대하여 뚜렷한 정(+)의 영향을 주므로, 기타 요인의 불변 조건하에서 $LOG(TR + FDI)$ 는 매 단위 증가 시 $LOG(NUM)$ 는 평균적으로 0.8553 단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중국의 금융시장은 2020년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립, 위안화 국제화, 농촌금융체제의 개혁 등 거시적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아중심, 점진적 발전, 안전 및 통제, 합작과 경쟁,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중국 은행산업은 점진적인 개혁과 해외자본 및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 당시 약속하였던 시장개방 이행계획에 따라 외자은행에 대한 내국민대우¹³⁾는 한국계 은행의 위안화 영업확대의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은 영업망의 한계성과 특수한 영업환경 등으로 중국 금융 산업의 양적확대와 영업력 신장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20일,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외자은행 관리 신 조례”를 발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자은행과 중국 내 은행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외자은행 운영에 더욱 유연하고 자주적인 제도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기존 최소 1억 위안의 운영자금 기준을 폐지하였고,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경영관련 기존 중국 내 영업기간이 3년 이상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시켰고, 신청 전 2년 연속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하였으며, 외국계은행이 중국에 분행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대표처를 우선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 정책반포로 인해 기존의 높은 장벽을 완화시켜 외자은행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계은행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계 은행의 대중국 진출동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Eviews6.0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의 한국계 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은 한·중 무역총액 및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금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계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는 모국의 고객을 추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설1의 검증을 통해 선행연구에 있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고객추종 가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GDP는 중국의 한국계 은행 지사기구 수량에 대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의 발전성과(시장기회)를 함께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설2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한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동기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요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의 지사기구 수량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동인 중의

13) 외국기업에게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

고객추종 가설을 검증하였고 시장개척 가설을 반박하였다. 이는 외국계은행의 시장개척의 중국 진출 동기와는 다른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동기는 중국시장 개척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국의 고객을 유치 하기 위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 연구문헌에서는 한국계 은행이 중국 현지법인은행을 설립한 기간이 길 지 않아 한국계 은행의 통계 및 중국정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동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때 오직 한국계 은행이 지난 수년간 중국에 진출한 지사기 구의 수량을 종속 변수로 선택하여 검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은행의 특성요인인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즉 진출은행의 규모(총 자산)와 수익성(자산순이익률) 등과 진출대상국의 GDP와 더불어 1인당 소득, 진출대상국의 은행부문 규모, 주식시장 규모, 인플레이션 등 수익창출 기회의 대응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한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동기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구기보. 2013. 중국금융론. 삼영사.
- 구본성. 2008. 국내은행의 성장성과 국제화 방향 : 금융조사보고서(2008-03). 한국금융연구원. 41-46.
- 금융감독원. 2014.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현황 및 감독방향. 정례 브리핑 자료.
- 금융위원회. 2013.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 김희식. 2008.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 금융경제연구. 316: 1-41.
- 민상기. 1990. 은행산업의 대외진출. 금융경제연구. 90: 103.
- 민상기. 1991. 은행기관의 제화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25(2): 13-63.
- 박동창. 2006.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방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5(13): 15.
- 박해식. 2004. 국내은행의 중국진출 유인과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서병호. 2008. 국내은행의 국제화 전략과 과제. The Banker 전국은행연합회. 16-25.
- 서병호. 2011.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 KIF금융리포트 2호. 한국금융연구원.
- 서봉교. 2014. 중국 은행별 국제화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2014
- 유철. 2008. 외국계 은행의 중국 금융시장의 진입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빈. 2008. 한국은행 산업의 국제화전략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
- 이창영. 2011. 중국의 금융제도. 한국금융연수원.
- 임민경. 2010. 한국계은행의 동북3성 진출현황 및 현지화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정조. 2013. 중국의 금융환경 변화와 중국 진출 국내은행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중간 무역에 기반한 국제포페이팅 등 금융기법 활용 국내은행의 영업전략. 관세학회지. 14(4): 251-268.
- 주나. 2010. 중국 은행산업의 개방과 한국계은행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만수. 2014. 중국은행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진출환경.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0. 중국의 서부지역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현황. 해외지역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2014. 1992-2013년도 해외투자통계. 해외경제연구소.
- 한유경. 2008. 국내은행의 해외 브랜드 구축 전략.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 후조양. 2005. 한국계 은행의 중국금융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ina Inside. 2014. 중국 상업은행 유동성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신 규정 도입. 주간 금융브리프.
- Xi.ng Gang. 2012.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呂彥·張文娟. 2010. 中小型韓資銀行本土化問題研究. 金融發展研究.
- 張紅軍·楊朝軍. 2007. 外資銀行進入中國市場的區位選擇及動因研究. 金融研究.
- 孫慧媛. 2008. 在華銀行的現狀分析. 合肥大學博士論文.
- 吳豔月. 2008. 中國銀行發展問題研究. 浙江大學博士論文.
- 張躍. 2009. 韓國銀行的中國進出. 中央財經大學博士論文.
- 顏丹. 2008. 中國的銀行現狀和未來發展. 四川大學博士論文.
- 劉詩平. 2009. 中國銀行業改革開放征程回放. 經濟科學出版社.
- 周小川. 2009. 2009-2012中國銀行業的展望. 工作會議議題.
- 白欽先·譚慶華. 2008. 政策性金融功能研究-兼論中國政策金融發展. 中國金融出版社.
- 劉均勝·戴長春. 2006. 中韓金融改革的比較制度分析. 當代亞太.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06. 中國人民共和國外資銀行管理條例.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06. 外資銀行管理條例實施細則.
- 人民日報. 2014.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外資銀行管理條例〉的決定. 中國人民銀行各年度統計年鑒.
- Agarwal, S. and S. N. Ramaswami. 1992.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Mode: Impact of Ownership, Location and Internalization Fac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1): 1-27.
- Claessens, S., A. Demircuc-Kunt, and H. Huizinga. 2001. How Does Foreign Entry Affect the Domestic Banking Market?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5): 891 - 911.
- Davis, S. I. 1979. *The Management Function in International Bank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 Davis, S. I. 1984. International Bank Strategies Beyond the Debt Crisis. *The Banker June*. 29-34.
- Dunning, J. H. 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1): 9-31.
- Erramilli, M. K. and C. P. Rao. 1990.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Modes by Service Firm: Roles of Market Knowledg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0(2): 135-150.
- Grubel, H. G. 1977. A Theory of Multinational Banking. *PSL Quarterly Review*. 30(123): 349-363.
- Giddy, I. H. 1986. The Theor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Banking.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JAI Press. (3): 195-243.
- Unite, A. A. and M. J. Sullivan. 2003. The Effect of Foreign Entry and Ownership Structure on the Philippine Domestic Banking Market.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7(12): 2323-2345.

최정석: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한중철강산업정책의 공헌도 분석, 2008)를 취득하고, 현재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중국거시경제, 중국유통, 중국산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 분석(2015)”, “중국 대형철강기업의 부상과 성장전략 연구(2015)”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중국 현대소비문화와 시장문화(2010)”, “중국 현대 기업문화의 변화(2011)”, “중국통상론(2013)”가 있다(ayuwa@daum.net).

이내준: 충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e-Business 활용과 시장 환경 및 기술적 요인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2007)를 취득하고, 현재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국제 유통 및 전자상거래, 국제마케팅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중국 온라인비즈니스 기업의 발전과 성장 요인-알리바바를 중심으로-(2015)”, “인터넷쇼핑에서 상호작용, 신뢰 및 지각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중국 인터넷쇼핑 이용자를 중심으로(2014)”, “Comparative Analysis of Intention to Use Toward Smartphon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2013)” 등이 있다(njlee@sunmoon.ac.kr).